

조선후기 燕行錄에 기록된 청대 風俗 인식의 추이

- 김창업 · 홍대용 · 박지원의 여행록을 중심으로

정 훈 식*

차 례

- | | |
|-------------------------------------|--------------------------------------|
| 1. 들머리 | 4. 풍속 기록의 방향: 利用厚生論의 전
개와 淸朝運數 짐작 |
| 2. 淸 인식을 위한 기본 관심사: 教化
대상으로서의 風俗 | 5. 마무리 |
| 3. 관찰 대상의 확대: 禮樂文物에서
人情世態까지 | |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 후기 ‘燕行錄三家’라 일컫는 김창업·홍대용·박지원의 여행록을 중심으로 풍속의 의미와 기록의 추이를 고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선 후기 여행록 저자들에게 풍속은 청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대상이었다. 이는 풍속이 조선의 왕도정치에서 교화의 기본 대상이자 그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성인의 가르침을 제도화한 관혼상제와 의복 등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또는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객원교수

충신·효자 등을 기리고 있는지를 살펴 풍속교화의 성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으로 청 입관 후 북경을 오가며 중국 건문을 기록한 다수의 연행록 저자들은 호북과 변발로 바뀐 중국을 보면서 중화 문명이 무너지고 오랑캐가 천하를 응거하였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입관 후 청의 치세에 주목한 저자들은 청의 풍속을 재인식하거나 새로운 대상으로 눈을 돌리며 만주족이 지배하는 중국을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호북의 실용성과 조선 의관의 불편함을 대비하며 기존의 관점을 전환하고, 이전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人情, 人品을 자세히 관찰하고 높이 평가하면서 청나라 풍속의 후함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들은 청의 풍속을 폭넓게 관찰하고 새로운 면을 적지 않게 발견하면서, 이전 교화의 대상으로서 풍속에서 이용후생을 위한 관심사로서의 풍속으로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축적되어 북학론을 형성한다. 한편으로 풍속은 청조의 운수를 짐작하는 중요한 근거로 간주되어 이와 관련된 기록이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이전 '胡無百年'설과 같이 화이론적 사고와는 다른 관점에서 중국의 흥망을 내다보는 방식이다.

이 연구는 조선후기 연행록에 기록된 풍속을 총괄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시론으로 수행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체 연행록으로 확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金昌業, 洪大容, 朴趾源, 『燕行日記』, 『을병연행록』, 『燕記』, 『乾淨衲筆談』, 『熱河日記』, 風俗, 教化, 利用厚生

1. 들머리

이 글은 조선 후기 연행록에 기록된 풍속의 의미와 그 기록의 추이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지하듯 연행록에는 다양한 풍속 기록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그간의 연구는 각론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衣食住¹⁾, 信仰²⁾, 幻術³⁾ 등에 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다양한 풍속 가운데 두드러진 기록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고찰을 진행하는 일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를 총괄하는 인식적 기반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소홀한 편이다.⁴⁾ 특히 연행록에서 풍속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많

- 1) 전혜숙, 『『燕行日記』의 服飾觀을 통해 본 對淸認識-金昌業의 『연행일기』를 중심으로-』, 『韓服文化』 8, 한복문화학회, 2004, 113~124쪽; 김철조, 『『熱河日記』를 통해서 본 燕行 사신의 의식주 생활』, 『漢文學報』 20, 우리한문학회, 2009, 71~116쪽; 『연행 과정의 食生活』,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2010, 81~130쪽; 이효원, 『華夷와 禮樂-18세기 동아시아의 衣冠 담론과 문명 의식』, 『한국학논집』 6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7, 7~44쪽; 김지현, 『清代 遼西 지역 民家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시각-조선 후기 使行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85,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2019, 11~34쪽; 최 식, 『熱河日記와 法古創新의 實體-三厄의 起源과 變貌樣相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2019, 343~385쪽; 『淸心丸으로 읽은 燕行的 文化史』, 『민족문화』 55, 한국고전번역원, 2020, 315~364쪽.
- 2) 이철희, 『연행록에 기록된 만주족 황실의 堂子 숭배에 대한 풍문』, 『대동문화연구』 9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299~321쪽.
- 3) 洪性南, 『燕行錄에 나타난 ‘幻術’과 ‘演劇’研究』, 『동아시아고대학』 5, 동아시아고대학회, 2002, 83~122쪽; 임준철, 『연행록에 나타난 幻術認識의 변화와 박지원의 『幻戲記』』, 『民族文化研究』 5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221~257쪽; 『18세기 이후 燕行錄 幻術記錄의 형성배경과 특성-洪大容, 朴趾源, 金景善의 幻術記錄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47, 한국한문학회, 2011, 65~104쪽; 『박지원 『幻戲記』의 幻術 考證과 분석』, 『民族文化研究』 5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569~613쪽; 『연행록 幻術記事를 구성하는 세 가지 층위와 幻史』, 『韓國漢文學研究』 51, 한국한문학회, 2013, 487~533쪽; 안순태, 『南公轍 燕行錄 所載 幻術 기록에 대한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74, 한국한문학회, 2019, 207~248쪽.
- 4) 최근 중국에서 연행록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성과를 내놓았는데, 타자 즉 조선의 시각에서 본 중국을 이해하면서 중국을 대상화하며 객관적으로 인식하고자 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 저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풍속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연행록 저자들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풍속을 바라보는 인식론적 바탕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葛兆光 지음, 이연승 옮김,

지 않다.⁵⁾ 최근 풍속의 범주에 들어가는 요소를 논의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 기록의 배경과 의도 등에 관한 포괄적인 고찰은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⁶⁾ 연행록에서의 풍속 기록은 특정한 풍속관에 의해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상술이 필요하다.⁷⁾

조선 후기 赴燕使⁸⁾들에게 풍속은 대단히 첨예한 문제였다. 특히 청이 들어선 이후 중화의 풍속이 오랑캐의 것으로 바뀐 대표적인 것이 호복과 변발이다.⁹⁾ 북경을 오가는 조선의 사신들이 이를 두고 오랑캐의 나라가 되었음을 실감한다. 따라서 풍속은 중화 문명의 몰락을 확인케 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여기에서 조선중화주의가 발생하는 바탕이 마련된

『이역을 상상하다』, 그물, 2019.

- 5) 신익철, 『연사일록』의 서술방식과 청국의 혼란상 및 풍속에 대한 인식, 『한국문학연구』 4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 161~195쪽.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연행록을 1784년 북경에 다녀온 김조의 『관해록』으로 밝힌 연구에서도 텍스트에 풍속 관련 기록이 자세하다고 기술하였으나, 그 내용과 의미가 자세하게 고찰되지는 않았다. 김영진, 『金照의 燕行錄 『觀海錄』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59, 한국한문학회, 2015, 155~179쪽.
- 6) 김현미, 『18세기 한문 산문 연행록 속 ‘풍속’ 요소의 인지와 범주』, 『한문고전연구』 33,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321~349쪽.
- 7) 최근 필자는 에도시대 長崎奉行에 의해 저술된 『淸俗紀聞』을 살펴면서 이를 연행록의 풍속 기록과 제한적으로 비교한 바 있으나, 동아시아 상호인식의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 연행록에서의 풍속 기록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훈식, 『『淸俗紀聞』 연구-동아시아 상호인식의 관점에서』, 『퇴계학논총』 36, 퇴계학부산연구원, 2020, 169~202쪽.
- 8) 이 명칭은 다음 연구에 의한다. 박희병·박희수, 『조선시대 중국 파견 사신의 총칭 문제』, 『한국문화』 8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3~41쪽.
- 9) 청의 초기부터 한족 등 주변 종족을 복속하기 위한 중요 정책이 剃髮易服이며, 만주족이 입관직후 처음으로 선포한 정책이기도 하다. 청군이 산해관에 들어선 1644년 4월 22일 관내 외 군민에게 剃髮令(薙髮令)을 내리고, 5월 1일 통주를 지나면서도 이 지역에 치발령을 내렸다. 그리고 5월 2일 북경에 입성한 뒤 익일에 순치제의 섭정 도르곤(多爾袞)이 투항한 관리와 軍民에 치발과 의관 등 청조의 제도를 따를 것을 선포했다(『淸世祖實錄』 卷5, 順治元年五月 庚寅, “分別留遣凡投誠官吏軍民皆着薙髮, 衣冠悉遵本朝制度”). 이듬해에는 남명을 정벌한 후 강남 지역에도 剃髮令을 내리며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갔다.

다.¹⁰⁾ 명이 망하고 중화문명이 무너졌으니, 조선에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조야를 지배했다. 그런데 막상 사행을 따라 중국에 가서 청의 치세를 목격하고는 오랑캐란 무엇인가 회의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풍속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형성되는데, 특히 주목할 부분이다.

연행록에 기록된 풍속에 대한 고찰은 우선 풍속이란 용어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해 풍속의 의미를 대략 살필 수 있다.¹¹⁾ 다음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미 층위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분석하면서 그 양상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 항목별 풍속 기록을 취합하여 목록화하고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각론에 관한 풍부한 연구 성과가 도움이 된다. 유사한 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피면 다양한 시각으로 기술한 배경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방대한 작업이 될 것으로, 우선 여기서는 시론적 단계로 김창업, 홍대용, 박지원의 연행록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 세 편의 연행록에는 다른 텍스트에 비해 풍속에 관한 논쟁적 사안과 인식의 변화, 그리고 기록 의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2. 淸 인식을 위한 기본 관심사: 教化 대상으로서의 風俗

평양은 옛 箕子의 도읍이다. 殷나라가 망한 후에 기자가 周나라의

10)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11) 후술하겠지만 연행록에서 풍속이란 용어를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민속의 각 영역 외에 왕과 지배계층이 유념해야 할 행동이나, 사람의 품성을 말하는 대목에서도 풍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신하가 되지 않으려 하니, 武王이 그 뜻을 굽히지 않아 동으로 조선에 봉하였다. 기자가 옛 백성 2천여 명을 데리고 예악문물을 갖추어 평양에 도읍하여, 여덟 가지 가르침을 베푸시니 풍속이 크게 변화였고, 문물제도가 성하고 빛나 실로 우리 동방 풍교의 근본이 되었다.¹²⁾

홍대용의 『을병연행록』에 있는 대목으로, 저자가 평양에 머물면서 기록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그의 풍속관을 살필 수 있는데, 바로 기자가 조선 평양에 도읍하여 가르침을 베풀어 풍속이 변화하였다는 대목에서 담힌 것은 풍속을 성인 또는 제왕의 교화 대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홍대용만의 생각이 아니라 조선 유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따라서 대부분 유자들에 의해 저술된 연행록에는 풍속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위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선 시대 유자들이 생각했던 풍속의 일반적인 개념은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 건국 시기부터 두드러진 특성이다.¹³⁾

일곱째는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는 일입니다. 궁실을 낮게 짓고 의복을 검소하게 한 것은 夏 禹王의 盛德이요, 百金을 아끼고 검은 명주로 옷을 지은 것은 漢 文帝의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중략)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夏 禹王과 漢 文帝의 검소한 德을 본받아 모든 服飾·器用·宴享·賞賜를 한결같이 儉約한 데에 따르고 부처와 귀신에게 쓰는 급하지 않은 비용은 모두 다 제거하게 하소서. 모든 하는 일을 방종 사치하지 아니하게 한다면,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감동하여 또한 풍속이 후하게 될 것입니다.¹⁴⁾

12) 홍대용, 정훈식 옮김, 『주해 을병연행록』 1, 경진, 2020, 33쪽.

13) 이미 선행 연구에서 조선조에 풍속은 통치의 측면에서 매우 중시되었음을 잘 밝혔다. 이로 보면 조선 시대 유자들의 풍속 개념은 오늘날 민속학에서의 그것과 약간 다르다. 조성산, 『조선후기 西人·老論의 풍속인식과 그 기원』, 『사학연구』 102, 한국사학회, 2011, 39~77쪽.

14) 『태조실록』, 태조 1년(1392) 7월 20일. <기강 확립·승려의 도태 등 10개 조목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문>

태조가 즉위할 즈음 사헌부에서 새로운 나라의 건설 방향에 대한 대강을 적시하여 올린 상소문의 일부로, 검약을 숭상하라는 주문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마지막 대목을 보면 왕의 일거수일투족이 일종의 정치적 행위로 그에 따라 풍속이 후박이 결정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태조 또한 즉위하면서 반포한 교서에 풍속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를 보면 백성들로 하여금 관혼상제 잘 따를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일과, 충신·효자 등을 발굴하고 선양하는 일을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¹⁵⁾, 이러한 정책은 모두 풍속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유가에서 관혼상제는 성인이 정한 제도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다. 이를 잘 지키는 것은 곧 군신이 유교를 숭상하고 이에 바탕을 둔 정치를 하며 백성을 잘 교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 반면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나라의 풍속이 어지러워졌다고 간주하는데, 이는 유교 중심의 중화 문명이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이처럼 조선에서는 건국 때부터 풍속을 교화함으로써 성리학 적 이상 국가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 풍속은 정치의 주된 목적, 또는 그 정치적 교화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임금의 정치적 능력과 그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한 잣대다. 이는 비단 조선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 널리 퍼진 오래된 개념이다.¹⁶⁾

15) 『태조실록』, 태조 1년(1392) 7월 28일, <태조의 즉위 교서>, “1. 冠婚喪祭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經典을 세밀히 구명하고 古書를 참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人倫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1. 忠臣·孝子·義夫·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勸獎해야 될 것이다. 所在官司로 하여금 詢訪하여 위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門閭를 세워 旌表하게 할 것이다.”

16) 조선 건국 초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무엇보다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의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李穀(1298~1351)은 “제가 듣건대, 『經書』에 이르기를 ‘정치는 민간의 풍속을 참작해서 개혁해야 한다.’ 하였고, 또 ‘백성의 풍속을 관찰하여 교화를 베푼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현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가 어찌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혹은 풍속의 후박의 차이를 관찰하기도 하고 혹은 교화의 난이의 정도를 살피기도 해서, 가르침을 베풀어 인도하고 정책을

풍속이란 창으로 중국을 바라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곧 중국의 정치 상황을 알 수 있고, 황제의 정치적 능력을 헤아릴 수 있으며, 중국이 과연 오랑캐의 나라인지 문명국인지 판단할 수 있다. 연행록에 기록된 중국 풍속은 대개 이러한 관점이 투영되어 있다. 특히 만주족이 입관한 이후 북경을 다녀온 대부분의 연행록 저자들은 연로에서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은 청인을 보고 중화문명이 무너졌다고 간주했다. 다시 홍대용의 기록을 살펴보자.

중국은 천하의 宗國이요, 교화의 근본이다. 의관제도와 시서문헌이 사방의 기준이 되는 곳이로되, 三代 이후로 성왕이 일어나지 않아 풍속이 날로 쇠약해지고 예악이 날로 사라졌다. (중략) 그러더니 대명이 일어나 斥劍을 이끌어 오랑캐를 소탕하고 남경과 북경의 天險에 웅거하여, 예악의관의 옛 제도를 하루아침에 회복하였으니, 北苑의 너름과 文治의 높음이 가히 漢唐보다 낮고 三代에 비길 만하였다. 이때 우리 동국이 또한 고려의 쇠란함을 이어 청명한 정교와 어질고 후덕한 풍속이 중화의 제도를 숭상하며, 동이의 고루한 습속을 씻어 聖神으로 위를 이으시고 明賢이 아래로 일어났다. (중략) 슬프다! 사람이 불행하여 이같이 융성한 때를 만나 漢官의 威儀를 보지 못하고, 天啓(명 희종 대 연호, 1620~

세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稼亭集』 제13, 『程文』, <應舉試策>)라 하였는데, 정치의 근간이 풍속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였다. 이는 유가에서 오래전부터 전하는 논리였다. 후한 시대 應劭(약 153~196)는 그가 지은 『風俗通義』의 서문에서 “『풍속통의』는 세간에 유행하는 잘못된 풍속을 통찰하여 의리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風이란 날씨에 따듯함과 차가움이 있고, 지세에 험준함과 평탄함이 있으며, 샘에 수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고, 초목에 부드러운 것과 강한 것이 있는 것을 말한다. 俗이란 혈기를 지닌 생명체 즉 사람이 만물을 본떠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말과 노랫소리가 다르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동작이 다르며, 흑자는 정직하고 흑자는 사악하며, 흑자는 선하고 흑자는 음란한 것을 말한다. 이에 성인이 나와서 속을 바로잡으면 모두 바른 길로 돌아가지만, 성인이 사라지면 본래의 속으로 돌아간다.”라 하여 풍과 속을 나누어 자못 상세하게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역시 풍속이 성인의 교화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민숙·김명신·정민경·이연희 옮김, 『風俗通義』 상, 소명출판, 2015, 33~34쪽.

1627) 이후 간신이 조정을 호리고 流賊이 천하를 어지럽혀, 만여 리 금수산하를 하루아침에 建虜의 器物로 만들어 삼대의 남은 백성과 성현이 끼친 자손이 다 머리털을 자르고 호복을 입어 예악문물에 다시 상고할 만한 곳이 없으니, 이러하므로 지사와 호걸이 중국 백성을 위하여 잠깐의 아픔을 참고 마음을 삭일 뿐이다.¹⁷⁾

『을병연행록』의 서두에는 연행의 목적과 동기 등이 자못 상세한데, 이는 그 중 한 대목이다. 홍대용은 특히 여기서 중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하며 중국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해야 할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논리의 줄기는 바로 풍속과 정치다. 중국은 시서예악의 근본으로 사방의 기준이 되는 나라인데, 성인이 나오지 않고 오랑캐가 웅거하여 풍속이 쇠약해졌다가 대명이 일어나 옛 의관과 예악을 회복하였다는 논리는 화이론이 바탕에 깔린 풍속교화론이다. 대명의 제도를 받아들여 조선도 풍속을 바꾸고 명현이 배출되었는데, 청나라가 들어서서 호복과 변발을 하니 예악문물을 다시 상고할 길이 없다는 말은 청의 풍속을 멸시하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홍대용뿐만 아니라 조선 사대부들이 공유하는 풍속관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실상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목격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청 입관 이후의 연행록 가운데 김창업의 『연행일기』와 홍대용의 연행록 삼종, 그리고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두드러져 있다.

가) 창춘원은 남북이 200여 보, 동서가 100여 보일 뿐인데, 그 안에 어떻게 15개의 이궁을 설치할 수가 있겠는가? 그 삼면을 둘러보았지만 끝내 처마끝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높고 크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또 그 문과 담을 보니, 제도가 순박하여 시골집과 다름이 없다. 진실로 놀기를 일삼고 사치에 바쁘다면 太液, 五龍과 같은 아름다운 곳을 버리고 여기에 거처하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이곳은 西山과 玉泉에 가까우니, 산수의 경치와 전야의 취미를 겸한 곳인데, 이러한 곳을 사랑하기 때문

17) 홍대용, 앞의 책, 23~24쪽.

에 온 듯하다. 이렇게 보건대, 그 사람의 성품을 헤아릴 수 있다. (중략) 또, 建夷·東夷의 종족은 성격이 본래 어질고 약하여 살인을 즐기지 않는데, 康熙는 검약함으로 고생을 견디며, 관대하고 간소한 규모로 상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권장하며, 財用을 절약하며 백성을 사랑하여 50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였으니, 태평을 이룩한 것은 당연하다. 정치에 儒術을 숭상하여 공자와 주자를 높였으며, 몸소 효도를 닦고 嫡母를 잘 섬겼으니, 비록 魏 孝文王이나 金 雍王에 비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18)

나) 창춘원은 康熙帝의 離宮인데, 경성 서쪽 20리에 있다. 담 높이는 두 길이 채 못 되는데, 담을 돌며 바라보면 높은 지붕을 볼 수 없어, 고루 거각 등 불만한 것이 없을 것 같다. 문 옆으로 墳園이 둘러 있어 소나무·잣나무가 울창하다. 그 법제의 간소하고 질박함을 알 수 있다. 문 단속이 너무 엄해 안으로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들여다보니 짐작건대 사방이 겨우 3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문도 단층 처마였고 단청도 소박하기만 했다. 60년 동안 천하의 받들이 되었던 궁실이 이처럼 낮고 검소했으므로, 천하를 威服시키고 華夷가 은혜에 젖어 오늘날까지 그를 성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중략) 오늘날 북경에 궁궐이 그토록 많고 화려한 것도 모두 명나라 3백 년간 풍요와 안정을 통해 짓고 꾸미고 한 것들이다. 거기에 그대로 놀러있다고 해서 아무도 말할 사람도 없고 또 그것으로 만족을 표시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거친 들판으로 나가 거의 甘棠 밭의 풀집처럼 하고 살았으니, 그의 욕심을 버리고 검소한 걸 보인 것이나, 시종일관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쓴 점은 뒤 임금들의 모범이 될 만하다. 또 千官들이 경성에서 매일 새벽에 나와 저녁에 돌아가야 했으니, 肉食하고 비단옷 입는 귀한 사람들로 하여금 말타는

18) 『燕行日記』 제5권, 1713년 2월 7일, “暢春苑南北二百餘步, 東西百餘步, 其內豈容寘十五處離宮乎. 園其三面, 而終未見屋蔭, 其不高大, 可知. 且觀其門與牆, 制度朴野, 無異村莊. 誠如事遊衍奢侈, 則棄太液五龍之倚麗, 而居乎此乎. 竊意此處, 與西山玉泉相近, 山水之景, 田野之趣兼焉, 似愛此而來耳. 以此觀之, 其人性稟可槩也. (중략) 且建夷東夷之種性本仁弱, 不嗜殺人, 而以康熙之儉約, 守汗寬簡之規模, 抑商賈以勸農, 節財用以愛民, 其享五十年太平宜矣. 至若治尙儒術, 而能尊孔朱, 躬修孝道, 而善事嫡母, 則雖比於魏孝文, 金主雍, 無媿矣.” 이하 인용하는 연행록의 원문과 번역은 모두 한국고전번역원DB의 자료를 참조하되, 더러 약간의 자구를 바꾸었다. 『열하일기』는 다음 번역본을 함께 참조하였다. 김철조 옮김, 『열하일기』 1·2·3, 들메개, 2017.

수고를 익히며 잠시도 편안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旗下의 諸官들도 대신 이하는 수레나 가마를 타고 다닐 수 없었으니, 그 제도가 반드시 선왕의 착한 법이 될 수는 없지만 편안한 속에서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으니 역시 伯主의 원대한 책략이라 말할 수 있다.¹⁹⁾

가)는 김창업의 『연행일기』, 나)는 홍대용의 『연기』에 보이는 기록이다. 두 기록 모두 창춘원을 통해 강희제(재위 1661~1722)를 평한 내용이다. 둘의 내용은 상당히 유사하며, 시간적 관계로 보건대 후자가 전자를 참고하였음이 분명하다. 창춘원은 강희제의 주요 거처로 북경황성 서북쪽으로 대략 20리 떨어진 곳에 있다. 김창업은 이곳에 머물고 있던 강희제가 조선 사행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자, 이에 응하기 위해 가는 일행을 따라 몇 차례 다녀온 뒤 창춘원과 강희제를 평하였다. 우선 조선에 떠도는 소문과 달리 매우 검소한 규모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는 강희제의 검소함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평하였다. 검소란 바로 조선의 태조가 즉위하면서 유념한 풍속교화의 방침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만주족의 황제가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물론 김창업은 강희제의 모자란 점도 기록해두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턱대고 오랑캐라고 멸시하는 조선의 편견을 바로잡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기록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로부터 약 반세기 후 홍대용이 다시 창춘원을 유람했다. 이때는 이미 별궁의 주인은 세상을 뜨고 건륭제(재위 1735~1796)의 치세가 되었지만, 홍대용

19) 『湛軒書』 외집 9권, 「燕記」, <暢春園>, “暢春園, 康熙帝之離宮, 在京城西二十里. 牆高不過二丈, 循牆而望, 不見峻蕘, 宜無樓榭榮觀. 門側環列墳園, 松柏翳鬱, 其法制之簡質可知. 閹守甚嚴, 雖不敢入門窺望, 量其地方, 纔三里. 門亦單簷, 丹雘朴素. 六十年天下之奉, 宮室之卑儉如此, 宜其威服海內, 恩浹華夷, 至于今稱其聖也. 三代以後, 君天下者競侈其居, 所謂南面之樂, 固不出於宮室之美, 輿馬帷帳之奉也. 雖畏天下議己, 外示節儉, 其心志嗜慾, 不可諱也. 今北京宮室之盛, 明朝三百年豐豫之所修飾, 居之而天下不敢議, 享之而足以明得意. 乃違而去之, 居於荒野之中, 殆同甘棠之芟舍, 其去慾示儉, 終始治安, 可爲後王之法矣. 且千官自京城, 每日曉出暮歸, 使肉食綺紈之子, 習勞鞍馬, 無敢逸豫, 其旗下諸官, 自大臣以下, 又不得以車轎自安, 此其制未必爲先王良法, 而其安不忘危, 亦可謂伯主之遠略矣.”

은 궁 밖에서 담벼락으로 넘어다보며 그 소박한 규모를 파악하고 선대 황제의 검소함과 원대한 책략을 높이 평가하였다. 청나라가 들어서서 중화의 풍속이 사라졌다는 관점은 강희제의 치세를 거치면서 더 이상 그 논리적 타당성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제 조선의 사대부들은 청나라 풍속을 새로 관찰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청의 의관을 재인식하고자 한 점이다. 나아가 관찰대상을 의관과 예약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하였는데 특히 사람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3. 관찰 대상의 확대: 禮樂文物에서 人情世態까지

“당신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귀국의 人物을 봅니다.”²⁰⁾

김창업은 沿路에서 청나라의 수재 康田을 만나 필담을 나누면서 자신의 사행 목적을 사람과 문물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 『연행일기』에는 청인이 살아가는 모습, 제도와 풍습, 문물 등 관심사가 매우 다양하며, 이는 여타의 연행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다. 그러나 그의 기록을 보면 이전 연행록에서 잘 보이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호인들이 평상시에 입는 옷은 모두 흑색으로 귀천의 구별이 없으나, 이날은 모두 관대를 갖추었다. (중략) 補服은 문관은 날짐승, 무관은 길짐승인데, 모두 명나라 제도를 따른 것이다. (중략) 馬踢胸, 馬踢腦의 제도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러한 복색은 중국의 제도는 아니나 귀천과 품급이 또한 분명해서 문란함이 없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冠帶之國이라

20) 『燕行日記』 제3권, 1712년 12월 24일, “夕仍問你來這裡何幹, 答看貴邦人物.”

고 하나, 귀천, 품급의 분별이 겨우 띠와 貫子에 불과하며, 보복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문무 귀천의 구분을 두지 않았다. 副使도 백씨와 같이 仙鶴을 써서 그 무늬가 문란하니, 가소롭다. 이곳 사람들은 몸집이 장대하며 모양이 우뚝한 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둘러보니 본래 작은 데다 또 먼 길의 풍진에 시달린 뒤여서, 세 사신을 제외하고 모두가 께죄죄하다. 착용한 의관도 대부분 여기에 와서 돈을 주고서 빌린 것이기 때문에 도포는 길이가 맞지 않고 사모가 눈까지 내려와 사람 같지 않게 보이니 더욱 한탄할 일이다.²¹⁾

나) 여름철이 아니면 부채를 쥐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겨울 부채를 보면 모두 웃는다. 옷깃의 털을 두텁고 넓게 꿰매어서 추위를 막는다. 그리고 휘항이나 귀마개, 바람가리 같은 둔한 것들이 없고 얇은 바지에 가벼운 갓옷뿐이므로 말타기가 심히 편리하며, 평지에서 말에 올라탈 때도 하인들의 부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터운 솜옷을 입고 아무리 키가 자그마한 당나귀를 탈 때도 반드시 墩臺 있는 곳을 골라 오른쪽으로는 발을 디디는 곳을 잡고, 왼쪽으로는 넓적다리를 부축케 하여 마치 험준한 언덕이라도 타고 오르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보면 모두 失笑하지 않는 이가 없다.²²⁾

조선에서는 항상 자신들의 의관이 중화의 법도를 잘 지켜오는 상징으로 생각했으나, 김창업과 홍대용이 막상 중국에 가서 보니 조선의 의관이야말로 형편없음을 깨달았다. 가)는 김창업이 새해 조참에 따라가서 본 중국의 관복제도와 조선의 관복제도를 비교한 대목이다. 보복은 곧

21) 『燕行日記』 제4권, 1713년 1월 1일, “胡人常時所服皆黑色, 貴賤無別, 至是日, 皆具冠帶. (중략) 補服, 文禽武獸, 悉遵明制. (중략) 馬踢胸, 馬踢胸, 未詳其制. 此等服色, 雖非華制, 其貴賤品級, 亦章章不紊矣. 我國自謂冠帶之國, 而貴賤品級之別, 不過在帶與貫子, 至於補服, 不曾分文武貴賤. 副使亦用仙鶴, 與伯氏同其文, 紊亂可笑. 此處人, 身材長大, 姿貌豐偉者居多, 而顧視我國人, 本自矮細, 又道路風塵之餘, 三使臣外, 率皆黧黑. 所穿衣帽, 又多來此而貴者, 袍則長短不中, 紗帽寬或至眼, 望之不似人, 尤可歎也.”

22) 『湛軒書』 외집 10권, 『燕記』, <巾服>, “非夏節, 不把扇. 見我人冬扇皆笑. 衣領縫厚毛以禦寒. 無揮項耳掩風遮諸鈍具, 薄袴輕裘, 跨馬甚便, 平地超乘, 不用僕御扶執. 見我人衣綿太厚, 雖果下小駒, 必擇高墩, 右執蹬左扶腿, 賈勇如登峻坂, 莫不失笑.”

흉배로 중국에서는 이를 명의 제도를 따라 품급의 분별이 분명하도록 착용하고 있는데, 조선은 문무나 귀천에 구분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조선은 임병양란을 거치면서 흉배제도가 문란해졌는데,²³⁾ 이는 정치의 문란과 무관치 않다. 조선 사행의 행색을 묘사한 대목에서도 한탄스럽다고 하였지만, 기실 이 대목은 웃음이 터질 만한 장면이다. 나는 흥대용이 북경에서 청인이 말을 타고 다니는 장면을 보고 조선 사행의 모습과 비교한 대목인데, 역시 의복과 관련된 소중화주의적 시각에 충격을 주는 내용이다. 조선이 오랑캐 의복을 비웃었으나, 실제 청국에서 보니 오히려 오랑캐 복장이 화려하고 편리하여 말타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으나, 조선 사행이 입은 옷은 트임이 없이 죽 늘어져 말타기에 여간 불편하지 않아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되었는데, 이를 두고 오히려 청인이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중화 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의복이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깨우치게 하는 데 효용이 없지 않을 대목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들은 이전에선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품성 그 자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한다. 다시 김창업의 『연행일기』를 보도록 한다.

가) 사동비의 문자는 명 指揮同知 王平과 都督府僉事 王盛宗 두 사람에게 내린 勅諭의 글이다. 좌측의 2개의 비는 왕성종이 만력 3년(1575)과 5년, 18년에 遼東前屯衛遊擊將軍을 제수한 칙서다. 우측의 비석은 왕평이 만력 20년(1592) 및 21년에 유격장군을 제수한 칙서다. 이 두 사람은 일찍이 金州, 復州, 海州, 蓋州, 錦州 등의 衛와 鐵嶺衛 등의 守將이 되어 누차 변방의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런데 비문 가운데 ‘奴酋’ 두 자는 모두 쫓아 내면서도 비석만은 그대로 두었으니 역시 너그러운 처사이다.²⁴⁾

23) 이 내용은 실제 조선은 명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흉배를 착용하도록 하였지만, 임병양란 이후 무질서하게 되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김영재, 『중국과 우리나라 胸背에 관한 고찰』, 『韓服文化』 3권 3호, 한복문화학회, 2000, 47쪽.

나) 아침에 수역이 와서 말하기를, “역졸 한 사람이 팔리포에서 뒤떨어졌는데 지금껏 오지 않아, 아문에 이야기해서 갑군을 풀어 찾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날씨가 몹시 추웠고 또 그 사람은 처음 길이라 말도 통하지 않는데, 만약 인가에 찾아들지 못했다면 동사했을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하였는데, 조금 후에 갑군이 데리고 왔다. 물어보니 날이 추워서 한 점방에 들어갔더니 따스한 온돌방에 재워 주고 밥도 주더라고 하였다. 이곳의 풍속이 후한 것을 알 만하였다.²⁵⁾

다) 서직문에 이르니 아직 열리지 않아 곧 말에서 내려 길옆에 앉았다. 문안에는 수레와 말이 봄비고 등불과 촛불이 휘황한데 모두 창춘원으로 가는 관원들이었다. 한 작은 점포가 등을 걸어 놓고 일찍 가게를 열었는데, 매매하는 것을 보니 檳榔 1개를 네 쪽으로 갈라놓고 담배를 작은 봉투에 갈라 넣어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사는 자들이 돈을 탁자에 놓고는 값에 따라 가져갔다. 전후에 와서 사는 자들이 많았지만 모두 한결같았다. 주인이 보지 않아도 가져가는 자들이 없었으니 풍속은 정말 가상하다.²⁶⁾

가)는 청조가 忠臣을 기리는 모습을 기록한 대목이다. 충신 顯彰은 앞서 살핀 풍속교화의 주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인데, 주목할 점은 여기서 충신이라 하는 이들이 청의 입관 전 적장으로 대했던 명나라 장수라는 점이다. 이들의 공을 새긴 비석을 천하를 응거한 청조의 입장에서 본다

24) 『燕行日記』 제8권, 1713년 2월 29일, “四同碑文字, 卽明朝指揮同知王平, 都督府僉事王盛宗兩人勅諭之文也. 左兩碑, 卽王盛宗萬曆三年五年十八年拜遼東前屯衛遊擊將軍勅書也, 右兩碑, 卽王平萬曆二十年及二十一年拜遊擊將軍勅書也. 蓋兩人, 曾爲金復海蓋鐵嶺錦州等衛守將, 屢立邊功者也. 碑文中奴酋二字, 皆琢去, 然只去其字, 不去其碑, 亦寬矣.”

25) 『燕行日記』 제3권, 1712년 12월 28일, “朝, 首譯來告曰: ‘驛卒一人, 自八里鋪落後, 至今不來, 言于衙門, 使甲軍尋來. 而昨日極寒, 其人又初行, 不通言語, 或不能得入人家, 則不無凍死之慮.’ 已而甲軍率來, 問之, 言因日寒入店, 處以溫炕, 饋之食. 此地風俗, 可知其厚也.”

26) 『燕行日記』 제5권, 1713년 2월 6일, “抵西直門, 未啓, 乃下馬, 坐路傍. 門內車馬填咽, 燈燭焚煌, 皆往暢春苑官員也. 一小肆懸燈開早市, 見其買賣, 以檳榔一顆四破, 南草作小封, 寘桌上. 沽者以錢投卓子, 隨直取去. 前後來沽者衆, 而皆如一. 雖其主不見, 而亦無濫取者, 其俗可尚也.”

면 없애도 무방할 일이지만, 그 비석을 그대로 두고 다만 누르하치를 꺾
 칭한 ‘奴酋’ 두 자만 지운 일에서 김창업은 청나라 정치의 너그러운 일면
 을 확인한다. 이는 만주족 통치 권력이 충신을 기리는 전통적 유가 정치
 를 숭상하여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유가의 전통적인 풍속
 관으로 보더라도 청은 오랑캐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다. 청나라 의관이나 변발을 통해, 혹은 조선과 다른 관혼상제를 통해 중
 국이 오랑캐 나라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시각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연로에서 청인이 사행을 수행하는 역졸에게
 편의를 제공한 일을 기록한 대목이다. 북경으로 가는 길이 매우 추워 사
 행길이 고역이었으나, 한 점포 주인이 뒤쳐진 생면부지의 역졸에게 숙식
 을 제공하며 동사를 면하게 한 일을 두고 풍속이 후하다고 하였다. 점포
 주인은 흔히 우리가 이르는 인심 좋은 사람으로, 개별 사례로 한정지어
 볼 법하다. 그러나 연행록에서는 이를 지역의 전반적인 풍속으로 확대하
 여 해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풍속은 곧 정치의 결과라는 관
 점에서 보면 이는 결코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황제가 교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 또한 풍속에 관한 관심사의 확장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창춘원으로 가는 길에 서직문 근처에서 본 한 점포에 주인은 없고 지나
 가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값을 놓아두고 가는 장면을 보고 김창업은
 참으로 숭상할 만한 풍속이라 하였는데, 이 또한 개별 사례로 보기보다
 는 교화에 의해 변한 풍속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김창업은 풍속을 관찰하면서 관혼상제와 의관에 국한된 관심
 사에서 벗어나 人情, 人品 등 이전에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던 대상으
 로 확대하였다. 이야말로 청나라의 정치와 교화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그 여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상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김창업
 이 보여준 관심 대상의 확장이 후대 연행록에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홍
 대용, 박지원의 연행록에서 두드러진다. 물론 두 사람도 여전히 변발, 호
 복, 관혼상제 등을 보면서 중국이 만주족의 나라가 되었음을 실감하지만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난 사례를 다수 기록하였다.

가) 풍속이나 인심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배나 너그럽고 후하다. 비록 아무리 성을 내고 욕지거리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맹세 하며 변명하면 성났던 사람도 곧 웃는 얼굴을 하며, 마음을 털어놓아 다시는 의심하거나 싫어하는 기색을 하지 않는다. 한 번은 正陽門 안에 앉아 있었는데, 세배하러 다니는 가마가 분주히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사람이 의복을 깨끗이 입고 지나가는데 수레 모는 사람들이 잘못 하여 진흙에 넘어뜨렸다. 틀림없이 성을 내고 싸움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이 천천히 일어나 툭툭 털더니 웃으면서 그냥 가버렸다. 이것은 비록 劉寬과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이다. 諸王들의 행차 호위는 매우 성대하여, 앞뒤로 각각 수십 쌍의 호위가 따르는데, 사람을 보면 반드시 비켜서라고 소리친다. 그 밖에는 비록 一品의 재상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비켜 세우거나 길을 빼앗지 않는다. 胡俗이지만 간소함이 또한 숭상할 만한 일이다.²⁷⁾

나) “그대는 무슨 벼슬에 있습니까?”

“7품입니다.”

“몇 등입니까?”

“등은 없습니다.”

“만주말을 할 줄 아시는지요?”

“할 줄 모릅니다.”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긴 하지만 드뭅니다. 노아는 漢官입니까? 아니면 만주입니까?”

“만주입니다.”

“몇 품입니까?”

“1품입니다.”

그 사람은 1품 무관으로 몸집이나 얼굴이 가냘팠게 생겼는데, 몸소

27) 『湛軒書』 외집 8권, 『燕記』, <京城記略>, “風俗氣味, 比我國十倍寬厚. 雖有盛怒詆罵者, 一人發誓自明, 怒者輒破顏開心, 不復爲疑阻色. 嘗坐正陽門內, 觀拜歲車馬甚盛. 一人衣裘新鮮, 驅車者誤觸之仆于泥. 意其發怒鬪鬪, 其人徐起拂拭, 笑而去. 此雖劉寬輩, 何以加焉. 諸王駟衛甚盛, 前後各十餘雙, 逢人必呵下. 其外雖一品閣老, 不辟人不奪路. 胡俗之簡率, 亦可尚也.”

책 아래에 와서 수작을 하는데 조금도 거만한 기색이 없고 簡質하기가 이러했다.²⁸⁾

다) 창대가 별안간 말 앞에 나타나 절한다. 몹시 반가웠다. 제 혼자 뒤떨어질 때 고개 위에서 통곡하자 부사와 서장관이 이를 보고 측은히 여겨 말을 멈추고 주방에게, “혹시 짐이 가벼운 수레가 있어 저를 태울 수 있겠느냐?”하고 물었으나 하인들이, “없소이다.”하고 대답하므로, 민망하게 여기고 지나갔을 뿐이더니 또 제독이 이르매 더욱 서럽게 울부짖으니, 제독이 말에서 내려 위로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지나가는 수레를 세내어 타고 오게 하였다. 어제는 입맛이 없어 먹지 못하니 제독이 친히 먹기를 권하고 오늘은 제독이 자기가 그 수레를 타고 자기가 댔던 나귀를 창대에게 주었으므로 이에 따라올 수 있었다. (중략) 제독의 마음씨가 매우 아름다우니 고마운 일이다. 그의 벼슬은 會同四譯官 禮部精鑠司郎中 鴻臚寺少卿이요, 그 직품은 정4품 中憲大夫였으며, 그 나이는 이미 60에 가까웠다. 그러나 외국의 한 마부를 위하여 이토록 극진한 마음씨를 보임은 비록 우리 일행을 보호함이 직책이라 하겠지만, 그 처신의 간략함과 직무에 충실함이 가히 대국의 풍도를 엿볼 수 있다.²⁹⁾

가)와 나)는 홍대용의 기록이며, 다)는 박지원의 기록이다. 세 기록 모

28) 『湛軒書』 외집 9권, 『燕記』, <東華觀射>, “又曰: ‘爾何官?’ 余曰: ‘七品下.’ 又曰: ‘幾等下?’ 余曰: ‘沒等.’ 又曰: ‘爾會滿洲話乎?’ 余曰: ‘未也.’ 又曰: ‘別有能會者?’ 余曰: ‘有會者亦少.’ 余又問曰: ‘老爺漢官也滿洲?’ 答曰: ‘滿洲.’ 余曰: ‘幾品?’ 答曰: ‘一品.’ 蓋其人一品武職, 體面不輕, 而身到柵下, 酬酢無傲色, 其簡質如此”

29) 『熱河日記』, 『漠北行程錄』, 1780년 8월 8일, “昌大忽拜馬前, 不勝奇幸矣. 渠方其落後也, 痛哭嶺上, 副使書狀, 行見之, 慘然停驂, 問廚房或有輕車, 可以並載者乎. 下隸對以無有, 則愀然而行. 提督至又大哭, 益悲痛, 提督下馬慰勞, 因守坐, 雇過去車爲載之來. 昨日口味苦不能食, 提督親爲勸食, 今日提督自乘其車, 以所騎騾授之, 故能追至. 其騾甚駿, 但聞耳邊風嘯. 問: ‘騾何在?’ 曰: ‘提督囑曰汝先去追公子, 若道中欲下, 須繫之過去車後. 我自可趕得, 毋慮也. 片時間約行五十里, 至嶺上, 逢車數千乘, 遂下騾, 繫之最後車尾. 車人問之, 遙指嶺南來路, 車人笑而點頭’ 提督之意, 甚厚可感也. 其官則會同四譯館禮部精鑠司郎中鴻臚寺少卿, 其品則正四, 其階則中憲大夫, 顧其年則近六十矣. 爲外國一賤隸, 如此其費心周全, 護此一行, 雖其職責, 其行已簡略, 奉職誠勤, 可見大國之風也.”

두 청인이나 관원의 기풍과 인물됨에 관해 기록하였는데, 모두 그들의 진솔함, 충실함 등을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다. 가)는 홍대용이 북경에서 살펴본 청인에 대한 일종의 총평으로 북경 사람은 너그럽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사례를 들어 말하였다.³⁰⁾ 나)는 청조 관원에 대한 평가다. 황성 주위에서 만난 고위 관원이 자신에게 조금의 위세도 부리지 않는 것을 보고 담헌은 그의 인품에 감동하였다. 『을병연행록』에도 이 일을 기록해두었는데 특별히 “중국 간략한 풍속과 관원의 진솔한 기상이 기특하였다.”³¹⁾라고 하여 풍속의 관점에서 사람을 살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박지원 또한 청조 관원에 특별한 인상을 받은 일화를 기록하였다. 다)는 연암이 북경에 도착한 직후 바빠 열하로 가는 도중에 마부 창대가 밧을 다친 일을 기록한 대목이다. 말발굽에 맨발을 밟혀 뒤쳐진 창대가 며칠 뒤 와서 연암에게 인사를 하고 그간의 사정을 말하였는데, 일행을 인솔하는 청조 관원이 자신의 나귀까지 내어주며 보살피 주었다는 말을 듣고 박지원은 청나라 관원의 인품, 대국의 풍도를 높이 평가했다.

이상 소위 燕行錄三家에는 이전과 달리 일반 백성과 관원의 사람됨과 심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였다. 특히 관원은 오랑캐 황제의 정치적 교화가 미치는 직접적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대개 그 인품과 마음 씀씀이가 조선 사절단을 감동케 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격한 특별한 사례임은 분명하지만, 저자들은 이러한 장면을 분명히 청의 ‘풍속’으로 인식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²⁾ 조선을 건국하면서 중시했던 그 移風易俗의 교화가 만주족의 청나라에서 목격할 수 있는 점을 의

30) 담헌은 후에 익위사시직에 임명되어 동궁 시절의 정조를 가르칠 때, 청인에 대해 묻는 정조에게 “인품을 논하면 만인이 한인보다 낮습니다.”(『湛軒書』 내집 2권, 『桂坊日記』)라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한 것이다.

31) 홍대용, 앞의 책, 427~428쪽.

32) 김현미의 연구는 18세기 연행록의 전개 양상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람으로 그 관심의 대상이 확대된 사실에 주목하였다. 다만, 이를 풍속과 관련지어 살피지는 않았다.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혜안, 2007.

외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열하일기』에서는 북경에서 실제 목격한 관원 중심에서 나아가, 고급의 영역으로 관심을 넓혀 고사를 가져오기도 하고, 변방의 평범한 사람 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며 논의를 진전시킨다. 『口外異聞』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글 두 편이 있다.

가) 漢武帝가 일찍이 河東으로 갈 때 책 다섯 상자를 잃었다가 다행히 張安世의 암송에 힘입어 이를 기록하였다는 말이 전하니, 이를 보아 당시에 刻版이 없었음을 알겠다. 후세에 판본을 처음으로 새기기는 後唐의 明宗 때다. 명종은 오랑캐 지방의 사람으로 글이라고는 알지 못했으나, 九經을 판각에 새겼으니, 곧 長興(명종의 연호, 930~933) 연간의 일이다. 그 공로가 鴻都의 石經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다. 명종이 당시의 사대부들이 길흉에 관한 예를 거행하면서 죽은 사람끼리 혼인시키는 冥婚 제도와, 상중에 있는 사람을 불러 벼슬을 시키는 起復 제도가 있음을 보고 탄식하기를, “선비란 효성과 우애를 높이고 풍속을 돈독하게 하는 자들이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상중에 있는 이를 벼슬에 앉히는 일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혼인은 경사스러운 의례인데 어찌 죽은 사람에게 혼례를 올리게 한단 말인가.” 하고는, 곧 劉岳에게 조서를 내려 문학과 고급의 일에 정통한 선비들을 뽑아서 함께 이 예문을 정리하게 하였다.³³⁾

나) 太學에는 王鵠汀이라 일컫는 老學究가 있는데, 민가의 어린아이 胡三多에게 글을 가르쳤다. 삼다의 나이는 겨우 열세 살이었다. 또 만주 사람으로 王羅漢이란 자가 있었는데, 나이 바로 일흔세 살이다. 삼다에게 비하면 한 갑자가 더한 무자생(1708년)으로 곡정에게 講義를 받는다. 매일 새벽이면 삼다와 함께 책을 끼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와서 곡정을 뵈었다. 곡정이 혹시 이야기 때문에 틈이 없을 때는 왕라한은 즉시 몸을

33) 『熱河日記』, 『口外異聞』, <長興鏤板>, “漢武帝渡河東, 亡書五篋, 幸賴張安世誦而錄之, 其無鏤板可知. 後世鏤板, 始於後唐明宗. 明宗胡人, 目不知書, 然其九經鏤板, 乃在長興中功. 不在鴻都石經之下. 帝歎當時士大夫吉凶之禮, 有冥昏起復之制, 曰: ‘儒者所以隆孝悌而敦風俗. 且無金革之事而起復可乎. 婚姻吉禮也, 如之何其用於死者.’ 乃詔劉岳, 選文學通知古今之士, 共刪定之.”

돌려 어린 호삼다에게 고개를 숙이고 주저없이 강의를 한 차례 받고 돌아간다. 곡정이 말하기를, “저분은 손자가 다섯, 증손이 둘입니다. 날마다 몸소 와서 강의를 듣고서는 돌아가 여러 손자들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그의 근실한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이렇듯 늙은이는 젊은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젊은이는 늙은이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중국이 예의가 밝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들은 바 있으나, 이런 변방에서도 풍속이 이렇게 순박한 것을 볼 수 있다. (중략) 그러나 남달리 혼후하고 원만한 태도는 주앙이 양대년에게 퍼부은 독설과는 아주 달랐으므로, 여기에 함께 기록하여 젊은이들이 늙은이를 업신여기는 풍조에 경계로 삼을까 한다.³⁴⁾

가)는 오대십국시대 후당 2대 황제 명종(재위 926~933)에 관한 이야기로, 연암은 『자치통감』, 『신오대사』 등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명종은 중국 서북방 유목민족인 處月族 출신으로 문자를 몰랐음에도, 중국 역사상 최초로 九經을 판각하여 퍼냈다.³⁵⁾ 이를 두고 연암은 이전에 없던 뛰어난 공로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으며, 나아가 당시 문란했던 사대부들 풍속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점을 들어³⁶⁾ 오랑캐 황제이지만 풍속 교화에 힘쓴 업적을 특별히 밝혔다. 나)는 열하에 머물 때 왕곡정의 문하생인 王羅漢이란 사람을 특별히 기록한 내용이다. 일흔세 살의 나이에 열세 살 아이와 동학을 자처하며 성실하게 배우는 그를 두고 박지원은 중국 변방의 풍속조차 이렇듯 순박하다고 감탄하였다. 사실 이 이야

34) 『熱河日記』, 『口外異聞』, <周翰朱昂>, “熱河太學, 有老學究曰王鵠汀者, 教授民家小兒胡三多, 年十三. 復有旗下王羅漢者, 年方七十三. 較三多爲先甲戊子生, 講義於鵠汀. 每日清晨, 與三多挾書後先踵門, 朝鵠汀. 鵠汀或談論無暇, 則輒轉身屈首於胡童, 嚮受一遍而去. 鵠汀云: ‘彼有五孫二曾孫. 身自日來講義, 歸而轉授衆孫, 其勤實如此.’ 然而老者不恥, 稚者不侮. 中州禮義之盛, 日有聞矣, 而邊末風俗之淳, 益可見耳. (중략) 然殊自渾厚, 頗異於朱昂之毒呪楊大年, 並記之, 以爲年少侮老之戒.”

35) 『資治通鑑』 第276卷, 『後唐紀五』, 明宗聖德和武欽孝皇帝中之下長興三年(932) 二月, “辛未, 初令國子監校定『九經』, 雕印賣之.”

36) 이는 『新五代史』 권55, 『雜傳』 제43, <劉岳>에 나오는 내용이다.

기 앞에 주한과 주앙이라는 노인을 업신여긴 양대년 이야기를 하였는데, 박지원은 그와 대조적인 왕라한을 대비시키며 늙은이를 업신여기는 젊은이들을 경계하기 위해 기록한다고 부기해두었다.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장유유서를 경계하는 데 오랑캐 노인을 일화로 든 배경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호복을 입고 변발을 한 청조 치하의 중국도 조선 못지않게 예의지방이며 어떤 때는 조선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우치게 할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상에서 김창업·홍대용·박지원의 연행록에 기록된 풍속 기록 가운데 특히 사람을 깊이 관찰하면서 중국의 풍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살폈다. 세 사람의 기록에 특별히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이들이 전통적인 풍속교화론에 입각하여 중국을 관찰하면서도 화이론의 색이 입혀진 풍속관을 견어내고 실상 그대로의 청 풍속을 관찰하여 객관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4. 풍속 기록의 방향: 利用厚生論의 전개와 清朝運數 집작

조선후기 연행록에서 관심을 보이는 풍속의 주요 관심사가 의관과 관혼상제 등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것은, 청인 가운데 놀랍도록 품격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예법도 모르는 오랑캐인 줄 알았던 청나라 사람들이 실상은 정반대라는 사실에서 연행록 저자들은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선의 풍속을 바라보는 시각에 기초하여 중국의 실상을 그대로만 보아도,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관심 대상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의미의 미묘한 변화를 일으킨다. 박지원은 여기에서 나아가 정치와 풍속에

관한 기존 관점의 전환을 모색한다.

풍속은 사방이 각기 다르니 이른바 백 리마다 풍속이 다르고, 천리마다 습속이 다르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법으로도 미칠 수 없고, 말로도 깨우칠 수 없는 경우에는 오직 음악만이 귀신같은 조화와 오묘한 작용을 펼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움직이고 햇살처럼 비추어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중에 고무되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 효과의 빠름은 예컨대 순임금이 삼묘를 정벌할 때에 양쪽 섬돌에서 깃털로 장식한 일산으로 춤을 춘 지 70일 만에 삼묘씨가 와서 신하로 복종하였다는 것이니, 이를 두고 풍속을 크게 변화시켜 지극한 도에 이르게 했다고 평가해도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남방의 부드러운 것과 북방의 강한 것을 바꿀 수 없을 것이요, 鄭聲의 음란한 것과 秦聲의 거센 것은 변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은 제각기 향토의 소리를 기품으로 타고났으므로 성인도 역시 풍속의 다른 바를 어찌지 못한다 하여, 鄭의 음탕한 소리를 내쳐 버리라 하였을 따름이었던 것입니다.³⁷⁾

『열하일기』, 『망양록』에 보이는 대목이다. 『망양록』은 음악에 관한 내용이지만 심층에는 정치와 역사에 관한 담론이 주를 이룬다.³⁸⁾ 이 글도 음악에 관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풍속과 정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37) 『熱河日記』, 『忘羊錄』, “至於風, 四方各異, 所謂百里不同風, 千里不同俗者是也. 故刑政之所不及, 口語之所難喻, 惟樂能宣幾之神而用之妙. 風動而光被之, 鼓舞於不知不覺之中, 其功化之速, 至如兩階舞羽, 七旬格苗, 雖謂之移風易俗, 一變至道可也. 然其實南方之柔, 北方之強, 不可易也, 鄭聲之淫, 秦聲之夏, 不可變也, 是乃土之聲而氣之稟, 則聖人亦無奈乎風之所異, 故曰放鄭聲而已矣. 이 대목은 『孝經』 제15, 『廣要道章』의 “풍속을 바꾸기에 음악보다 나은 것은 없다(移風易俗 莫善於樂).” 혹은 『荀子』의 『樂論』에서 그 뜻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의 두 내용이 음악이 풍속을 바꾸는 데 유용하다고 한 것에 비해, 곡정의 이 말은 그 효용을 다소 회의하고 있어 반론의 성격을 띤다.

38) 최근 『망양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음악적 내용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다. 유심히 읽어야 할 대목은 대화의 이면에 흐르는 정치적 의미로 판단된다. 김수현, 『『열하일기』의 음악대담 『망양록』 연구』,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2019, 10~54쪽.

풍속은 지방마다 달라 바꾸기 어려운데 음악만이 그 풍속을 교화시킬 수 있으나, 그것도 실상은 매우 힘든 일이니 정치를 통해 풍속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어느 지역의 풍속은 오래전부터 전해 오는 것으로, 교화의 효과가 큰 음악으로도 바꿀 수 없다. 곡정이 한 말이라고 했지만, 박지원의 생각과 무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지막의 ‘제각각 향토의 소리를 기쁨으로 태어났’다는 구절은, 풍속이란 각각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발생하고 전승되는 것으로 성인도 온전히 바꿀 수 없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앞서 살핀바 조선 건국부터 풍속교화의 기치를 내건 유가들의 정치적 관점과 어긋나는 대목이다. 풍속은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풍속은 정치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영역이라는 의미다. 말하자면 정치와 풍속의 분리를 꾀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행간의 의미를 추론하면, 만주의 풍속이나 한족의 풍속이나 제각각 다른 지역의 풍속일 따름이며, 중화와 오랑캐의 풍속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증이라 할 만한 글이 보이는데, 『避暑錄』에 있는 글로 항주의 풍속을 언급한 대목이 그것이다. 항주는 남송의 수도였으며, 청대에도 소주와 함께 강남의 대표적 도시다. 특히 북방에 변란이 일어나거나 오랑캐가 지배하면 왕족과 귀족 사대부들이 이곳 강남으로 옮겨 터를 잡았는데 이러한 연유로 문인문화가 성장한다. 조선의 문인들은 이곳 강남을 특히 동경하였는데, 홍대용도 유리창에서 항주의 세 선비를 만난 첫날 이러한 조선 문인의 마음을 잘 드러냈다. 그런데 박지원은 조선 선비들의 상상 속에 있는 강남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꼬집어낸다. 연암이 인용한 글은 田汝成(1503~1557)이 쓴 것으로, 그 요지는 항주는 남송부터 거짓이 판치는 풍속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³⁹⁾ 전여성은 명대 항주 출신 문인이다.⁴⁰⁾ 문장에 뛰어나

39) 『熱河日記』, 『避暑錄』, “錢塘田汝成『委巷叢談』曰: ‘杭俗浮誕, 輕譽而苟毀, 道聽塗說, 無復裁量. 如某所有異物, 某家有異事, 一人唱之, 百人和之, 身質其疑, 皎若目

고 정치적 업적도 많았지만, 정작 자신의 고향에 대한 평가는 이렇듯 냉혹하다. 원 이후 명나라가 들어서서도 이 풍속이 바뀌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명대의 정치가 바르지 못했거나, 아니면 바로 앞서 말한 대로 정치 교화로도 바꾸기 어려운 것이 풍속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박지원이 풍속을 탈정치의 영역으로 옮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 연암이 분리하고자 한 것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교화’다. 대신 그 빈자리에 나라의 전반적인 혁신의 방도를 모색하는 정치적 기획을 배치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용후생을 위한 관심사로서 중국의 풍속을 관찰하고자 한 시도이다. 학계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된 바 있는 實學, 北學 등의 개념은 주지하듯 백성들의 의식주를 기본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개선을 주된 과제로 한 것이며,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실학 혹은 북학의 정책적 명제들이다. 실학, 북학에서의 풍속은 여기서 사회 민생개혁의 과제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품은 문사들이 북경을 왕래하며 견문한 풍속 기록에는 화이론적 시각과 전통적 왕도정치의 관점에서 기록한 사례보다 민생개혁을 위한 방도를 모색하면서 기록한 사례가 더 많이 확인된다.⁴¹⁾ 유가에서 원래

靚, 譬之風焉起, 无頭而過, 無影不可踪蹟. 故諺云, 杭州風, 會撮空好和, 歹立一宗. 又云杭州風一把, 葱花簇簇裏頭空. 又其俗喜作偽, 以邀利目前而不顧身後. 如酒攙灰, 鷄塞沙, 鵝竿吹氣, 魚肉貫水, 織作刷油粉, 自宋時已然.”

40) 『明史』 『列傳』 第一百七十五, 文苑三에서 그에 대한 간략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41)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교화의 대상으로서의 풍속과 민생개혁을 위한 관심사로서의 풍속은 공히 정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다만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중점 방향이 달라진 것인데, 이미 선행 연구에서 많이 언급했듯이 『書經』의 ‘正德利用厚生’이 전자의 논리적 배경이 된다면, 후자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용후생정덕’을 제기하였다. 『열하일기』, 『도강록』, 1780년 6월 27일, “아아, 이러한 연후에야 비로소 利用이라 이를 수 있겠다. 이용이 있는 연후에야 厚生이 될 것이요, 후생이 된 연후에야 正德이 될 것이다. 대체 이용이 되지 않고서는 후생할 수 있는 이는 드물지니, 생활이 이미 제각기 넉넉하지 못하다면, 어찌 그 마음을 바로 지닐 수 있으리오.” 이런 점에서 보면 교화나 이용후생도 移風易俗을 위한 정치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임형택·김명호·염정섭·리웨탕

교화의 주요 과제와 그 결과로 풍속을 인식했지만, 조선 후기 특히 북학파들은 일종의 사회 민생개혁의 주요 과제로서 풍속을 인식하려고 시도하였다 할 만하다. 그것을 일러 박지원, 박제가는 ‘利用厚生’이라 하였다.⁴²⁾ 이에 관한 논의는 자못 풍부하다. 특히 실학에 관한 연구가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면서 그 논의의 수준과 규모가 다른 분야를 압도하여 여기에서 특별히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이용후생론이 바로 풍속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풍속을 관찰하면서 생각을 바꾸었고, 그 풍속을 배워야 한다는 논리를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전개하는데, 이것이 북학으로 집적되었다.⁴³⁾

북경을 오간 사행이 풍속을 기록한 또 다른 방향은 곧 청조의 운수 짐작에 있었다.

가) 원명원은 暢春園 서쪽 10리에 있는데, 雍正帝의 이궁으로 지금 황제도 가끔 납신다. 강희제가 60년 동안 천하를 거느리면서도 검약으로 평생을 마쳤다는 것을 창춘원에서 볼 수 있었다. 뒤를 이은 임금들이 제대로 법도를 따라 지키지 못하고 別園을 새로 세웠으니 벌써 전 임금

· 김용태, 『연암 박지원 연구』, 사람의무늬, 2012.

42) 朴趾源, 『燕巖集』 제7권 별집, 『鍾北小選』, <北學議序>, “禮는 차라리 소박한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누추한 것을 검소하다고 여겨 왔으며, 이른바 四民이라는 것도 겨우 명목만 남아 있고, 利用厚生의 도구는 날이 갈수록 빈약해져만 갔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배우고 물을 줄을 몰라서 생긴 폐단이다.” 朴齊家, 『北學議』, 『北學議自序』, “이용과 후생은 한 가지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위로 정덕을 해치는 폐단을 낳게 된다. 따라서 공자께서 ‘백성의 수가 많아진 다음에 그들을 교화시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관중은 ‘의식이 풍족해진 다음에 예절을 차리는 법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43) 박제가는 그의 북학론이 풍속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박제가, 『북학의자서』, “수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평소에 듣지 못한 사실을 들었고, 중국의 옛 풍속이 여전히 남아 옛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그들의 풍속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만한 것이 있으면 발견하는 대로 글로 기록하였다.”

의 본뜻을 저버렸는데, 그 제작의 사치하고 웅대함이 10배 정도가 아니었고, 게다가 지금 황제가 다시 수리를 더해서 그 화려함이 서울의 궁궐을 능가할 형편이니, 강희제가 검약을 숭상하기 위해 들판으로 나가 있게 된 보람을 어디서 찾겠는가?⁴⁴⁾

나) 내가 “網巾은 비록 전조의 제도이나 실은 좋지 않습니다.”

역암이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말의 꼬리를 머리 위에 이니 어찌 관과 신발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닙니까?”

역암이 “그러면 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부터 하던 것이기에 편히 여기고, 또 차마 明制를 잊지 못해 서입니다.”

내가 “또 부인의 조그만 신은 어느 대에 비롯했습니까?”

난공이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전하여 이르기를, 南唐의 李宵娘부터 비롯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일찍 이르기를, 網巾과 纏足은 중국 厄運의 징조라고 하였습니다.”⁴⁵⁾

위의 두 인용문은 모두 홍대용의 기록에 보이는 내용이다. 가)는 저자가 원명원을 보면서 건륭 치하 청조의 운수를 가늠하고 있는 대목이다.

44) 『湛軒書』 외집 9권 『燕記』, <圓明園>, “圓明園, 在暢春園西十里, 雍正帝之離宮, 今皇之時御. 康熙帝御天下六十年, 儉約以沒身, 卽暢春園可見矣. 嗣君不能遵守矩度, 創立別園, 已失先皇本意, 制作之侈大, 又不啻十倍, 而今皇益加增飾, 佳麗反勝於都宮, 康熙帝崇儉居野之義, 安在哉.” 『을병연행록』에서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며, 원명원을 오랑캐의 운수를 짐작하는 장소로 여겼음을 분명히 했다. 홍대용, 앞의 책, 145~146쪽, “강희가 평생 검소한 정사로 60년 재물을 모았으나 도리어 다음 임금의 사치를 도우니, 한 번 성하고 한 번 쇠함은 物理에 依法한 일이지만, 조상의 가난을 생각지 않고 재물의 한정이 있음을 돌아보지 아니하니 오랑캐의 운수를 거의 짐작할 만하였다.”

45) 『湛軒書』 외집 2권, 『杭傳尺牘』, <乾淨衲筆談>, “余曰: ‘網巾雖是前明之制, 實在不好.’ 力闇曰: ‘何故?’ 余曰: ‘以馬尾戴頭上, 豈非冠履倒置乎.’ 力闇曰: ‘然則何不去之?’ 余曰: ‘安於故常, 且不忍忘明制耳.’ 余又曰: ‘人小鞋, 始於何代?’ 蘭公曰: ‘無明證. 但傳云始自南唐李宵娘.’ 余曰: ‘此亦甚不好, 余嘗云網頭纏足, 乃中國厄運之先見者.’

앞서 창춘원의 소박한 규모를 통해 강희제의 치세를 높이 평가했다면, 그의 손자 건륭제는 반대로 사치스럽기 이를 데 없는 규모로 자신의 별궁을 꾸미고 있음을 보고 청조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지배 권력의 사치는 고금역사를 통틀어 망국의 한 요인임이 널리 공인되어 있으며, 사치가 망국의 징조라고 보는 시각은 동아시아 고대에서부터 하나의 이론처럼 전해온다. 결과적으로 홍대용이 청조의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나)에서는 망건과 전족을 통해 명나라가 필연적으로 쇠락할 조짐을 보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⁴⁶⁾ 그간 홍대용이 청나라의 변발과 호복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였지만, 명나라의 풍속에 대해서도 사뭇 부정적 태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대목은 문제적이다. 답헌은 비록 명나라가 청에 의해 망하였지만, 그전 명나라 황제의 교화가 망건과 전족을 없애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이것이 일차적인 쇠망의 조짐이었음에 주목하였다. 홍대용이 풍속으로 명·청의 운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교화의 대상으로서 풍속이란 관점에 여전히 바탕을 두고 있으나, 이전의 ‘胡無百年’설과 같은 화이론적 시각에서는 벗어나 있다.⁴⁷⁾

46) 『열하일기』에도 三厄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이에 관해서는 최식, 『熱河日記와 法古創新의 實體-三厄의 起源과 變貌樣相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2019, 343~385쪽 참조.

47) 최근 중국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연행록에 나타난 ‘호무백년’을 두고 조선의 소중화의 관점, 현실 인식의 오류, 혹은 주술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석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중국 인식을 위한 사상적 모색의 과정에서 청조의 현실과 미래를 관찰한 흐름도 분명히 있었다는 점에는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 桂濤, 『論“胡無百年之運”-17, 18世紀朝鮮士人認識清朝的基本框架及其瓦解』, 『史林』 2019年 1期, 上海社會科學院, 2019, 79~88쪽; 申佳霖, 『朝鮮後期知識人士的斥清表現-以“胡無百年說”爲中心』, 『當代韓國』 2019年 4期,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19, 95~104쪽; 王微笑, 『연행길의 玉田縣 枯樹鋪와 ‘胡無百年’설』, 『민족문화』 56, 한국고전번역원, 2020, 265~294쪽.

5. 마무리

조선후기 연행록에 기록된 풍속을 살펴본바, 이는 청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지배층 사이에서 풍속은 조선의 왕도정치에서 교화의 기본 대상이자 그 결과이기 때문이다. 성인의 가르침을 제도화한 관혼상제와 의복 등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또는 충신·효자 등을 기리고 있는지 살펴 풍속교화의 성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으로 중국 견문을 기록한 다수의 연행록에서는 청 입관 후 북경을 오가며 호북과 변발로 변한 중국을 보면서 중화 문명이 무너지고 오랑캐가 천하를 응거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청의 치세를 목격한 연행록 저자들은 청의 풍속을 다시 보거나 새로운 대상으로 눈을 돌리며 중국을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호북의 실용성과 조선 의복의 불편함을 비교하며 기존의 관점을 전환하고, 이전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人情, 人品을 자세히 관찰하고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 풍속의 후함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풍속을 깊이 관찰하고 새로운 면을 적지 않게 발견하면서, 교화의 대상으로서 풍속에서 이용후생론을 전개하기 위한 관심사로서의 풍속으로 새롭게 관찰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축적되어 북학론을 형성한다. 한편으로 풍속은 중국의 운수를 짐작하는 중요한 근거로 간주되어 이와 관련된 기록이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이전 ‘胡無百年’설과 같이 화이론적 사고와는 다른 관점에서 중국의 흥망을 내다보는 방식이다.

이 글에서는 김창업·홍대용·박지원의 연행록을 중심으로 풍속의 의미와 기록의 추이를 고찰하였지만, 전체 연행록으로 확대하여 총괄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김창업, 『연행일기』,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박지원, 『열하일기』,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박지원 지음, 김철조 옮김, 『열하일기』1·2·3, 돌베개, 2017.

박제가 지음, 안대회 옮김, 『북학의』, 돌베개, 2003.

이곡, 『가정집』,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태조실록』,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홍대용, 『담헌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홍대용, 정훈식 옮김, 『주해 을병연행록』 1·2, 경진, 2020.

『明史』, 『荀子』, 『新五代史』, 『資治通鑑』, 『清世祖實錄』, 『孝經』

응소 지음, 이민숙·김명신·정민경·이연희 옮김, 『風俗通義』 상, 소명출판, 2015.

2. 논저

김수현, 『『열하일기』의 음악대담 「망양록」 연구』,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2019, 10~54쪽.

김영재, 「중국과 우리나라 胸背에 관한 고찰」, 『韓服文化』 3권 3호, 한복문화학회, 2000, 45~54쪽.

김영진, 「金照의 燕行錄 『觀海錄』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59, 한국한문학회, 2015, 155~179쪽.

김지현, 「清代 遼西 지역 民家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시각-조선 후기 使行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11~34쪽.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해안, 2007.
- _____, 『18세기 한문 산문 연행록 속 ‘풍속’ 요소의 인지와 범주』, 『한문 고전연구』 33,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321~349쪽.
- 김혈조, 『『熱河日記』를 통해서 본 燕行 사신의 의식주 생활』, 『漢文學報』 20, 우리한문학회, 2009, 71~116쪽.
- 김혈조, 『연행 과정의 食生活』,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2010, 81~130쪽.
- 박희병·박희수, 『조선시대 중국 파견 사신의 총칭 문제』, 『한국문화』 86,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3~41쪽.
- 신익철, 『『연사일록』의 서술방식과 청국의 혼란상 및 풍속에 대한 인식』, 『한국문학연구』 4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2, 161~195쪽.
- 안순태, 『南公轍 燕行錄 所載 幻術 기록에 대한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74, 한국한문학회, 2019, 207~248쪽.
- 王微笑, 『연행길의 玉田縣 枯樹鋪와 ‘胡無百年’설』, 『민족문화』 56, 한국 고전번역원, 2020, 265~294쪽.
- 이철희, 『연행록에 기록된 만주족 황실의 堂子 숭배에 대한 풍문』, 『대동문화연구』 9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7, 299~321쪽.
- 이효원, 『華夷와 禮樂-18세기 동아시아의 衣冠 담론과 문명의식』, 『한국학논집』 6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7, 7~44쪽.
- 임준철, 『연행록에 나타난 幻術認識의 변화와 박지원의 『幻戲記』』, 『民族文化研究』 5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221~257쪽.
- _____, 『18세기 이후 燕行錄 幻術記錄의 형성배경과 특성-洪大容, 朴趾源, 金景善의 幻術記錄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47, 한국한문학회, 2011, 65~104쪽.
- _____, 『박지원 『幻戲記』의 幻術 考證과 분석』, 『民族文化研究』 5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569~613쪽.

- _____, 『연행록 幻術記事를 구성하는 세 가지 층위와 幻史』, 『韓國漢文學研究』 51, 한국한문학회, 2013, 487~533쪽.
- 임형택·김명호·염정섭·리쉐탕·김용태, 『연암 박지원 연구』, 사람의 무늬, 2012.
- 전혜숙, 『『燕行日記』의 服飾觀을 통해 본 對淸認識-金昌業의 『연행일기』를 중심으로-』, 『韓服文化』 8, 한복문화학회, 2004, 113~124쪽.
-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 정훈식, 『『淸俗紀聞』 연구-동아시아 상호인식의 관점에서』, 『퇴계학논총』 36, 퇴계학부산연구원, 2020, 169~202쪽.
- 조성산, 『조선후기 西人·老論의 풍속인식과 그 기원』, 『사학연구』 102, 한국사학회, 2011, 39~77쪽.
- _____, 『18세기 후반~19세기 중반 조선 세시풍속서 서술의 특징과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60, 조선시대사학회, 2012, 183~221쪽.
- 최소자·정혜중·송미령 엮음, 『18세기 연행록과 중국사회』, 해안, 2007.
- 최 식, 『熱河日記와 法古創新의 實體-三厄의 起源과 變貌樣相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2019, 343~385쪽.
- _____, 『淸心丸으로 읽은 燕行의 文化史』, 『민족문화』 55, 한국고전번역원, 2020, 315~364쪽.
- 洪性南, 『燕行錄에 나타난 ‘幻術’과 ‘演劇’研究』, 『동아시아고대학』 5, 동아시아고대학회, 2002, 83~122쪽.
- 葛兆光, 『想象異域』, 中華書局, 2014(이연승 옮김, 『이역을 상상하다』, 그물, 2019).
- 桂 濤, 『論“胡無百年之運”-17, 18世紀朝鮮士人認識淸朝的基本框架及其瓦解』, 『史林』 2019年 1期, 上海社會科學院, 79~88쪽.
- 申佳霖, 『朝鮮後期知識人士的斥淸表現-以“胡無百年說”爲中心』, 『當代韓國』 2019年 4期,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19, 95~104쪽.

<Abstract>

Trends in the Perception of Customs of the
Qing Dynasty Recorded in Yeonhaengn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the records of Kim Chang-up, Hong
Dae-yong, and Park Ji-won

Jung, Hun-Sik*

This article focuses on examining the meaning of customs and the trend of records, centering on the records of Kim Chang-up, Hong Dae-yong, and Park Ji-won. For the authors of Yeonhaengnok in the late Joseon Dynasty, customs were an object to focus on in order to grasp the identity of the Qing Dynasty. This is because customs are the basic object and result of edification in Joseon's royal politics. It was considered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customs cultivation could be judged by examining whether the ceremonial occasions and ceremonies were followed properly, or whether the loyalists and filial sons were honored.

From this point of view, in a number of chronological records that recorded Chinese knowledge while traveling to and from Beijing after Qing was admitted, it was confirmed that the Chinese civilization collapsed and the barbarians occupied the world by seeing China changed into Manchu clothing and pigtailed. However, authors who witnessed the political stability and prosperity of Qing after entering the country began to re-recognize China by reinterpreting the existing

* University of Uls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ustoms of Qing or turning to new objects. They prepared for the practicality of Manchu clothes and the inconvenience of Joseon clothes, changed their perspectives, and began to emphasize the generosity of Chinese customs by closely observing and evaluating the character of a person who had not paid much attention before.

In addition, while observing the customs of China extensively and discovering not a few new aspects, it began to record from customs as an object of previous edification to customs as a concern for welfare, and this accumulates to form the theory of Bukhak. On the one hand, customs are regarded as an important basis for predicting the rise and fall of China, and related records are sometimes transmitted. However, this is a way of looking at the rise and fall of China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theory of pharmacology, as in the previous “胡無百年(A barbarian country will be destructed in less than a hundred years.)” theory.

Based on this study, which was carried out as a preliminary step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customs record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it to the entire chronological record in the future.

Key Words: Kim Chang-up, Hong Dae-yong, Park Ji-won, *Yeonhaengilgi*(燕行日記), *Ulbyungyeonhaengnok*(을병연행록), *Yeongi*(燕記), *Ganjeongdongpildam*(乾淨洞筆談), *Yeolhailgi*(熱河日記), customs, edification, *Iyonghusaeng*(利用厚生)

■ 논문접수 : 2021년 3월 29일

■ 심사완료 : 2021년 4월 16일

■ 게재 확정 : 2021년 4월 20일